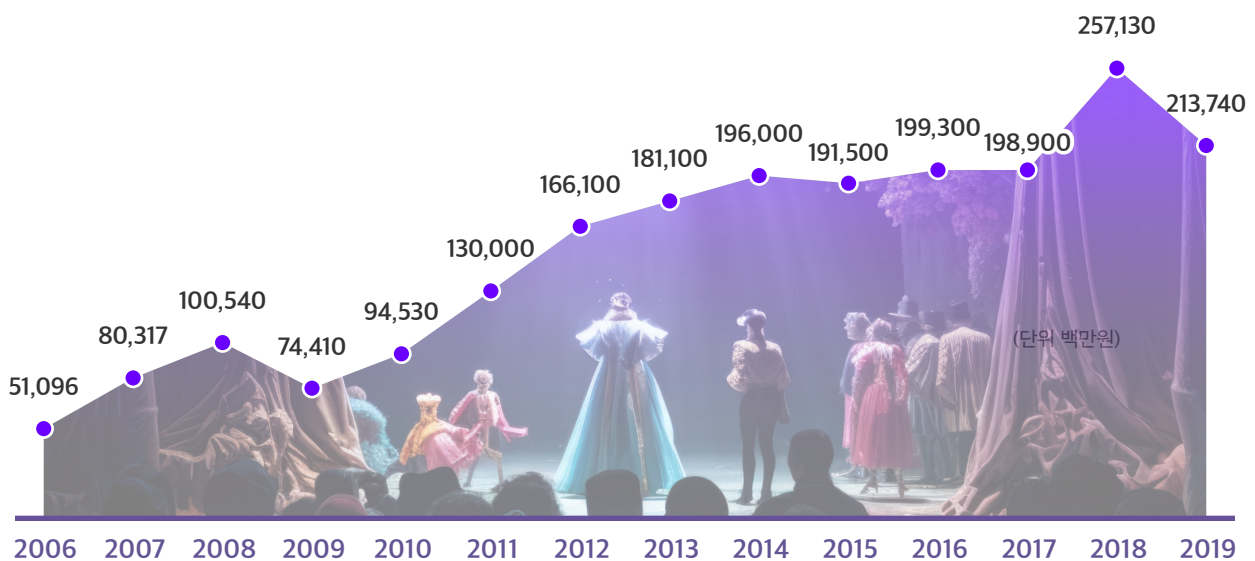


10주년 기념 뮤지컬의 성행,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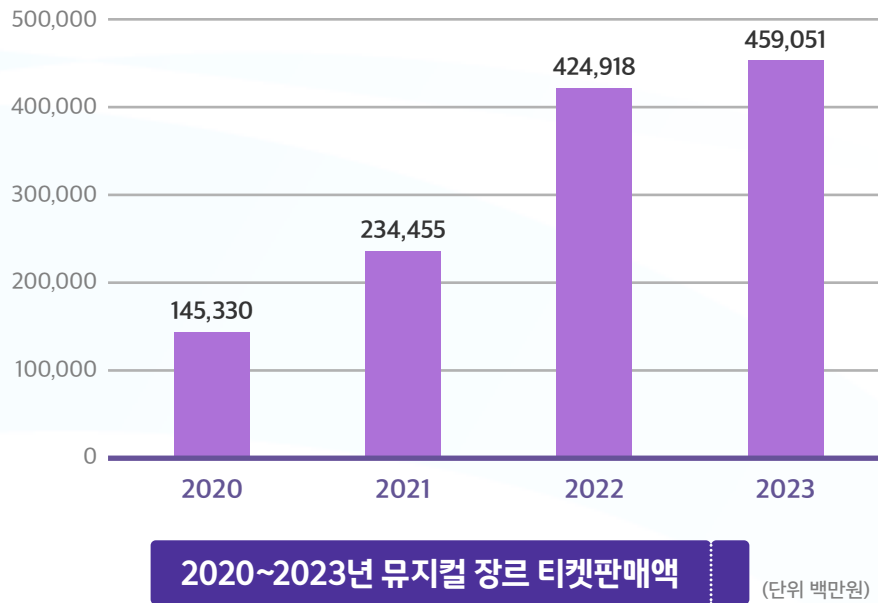
2024년 올해는 뮤지컬 <드라큘라>, <위키드>, <프랑켄슈타인>이 1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해(2023년)에는 <레베카>, <레미제라블>, <그날들>이 10주년을 맞았다. 최근 들어 10주년을 맞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 뮤지컬이 본격적인 산업화 행보를 한 지 20여 년이고 매해 우수한 대형 뮤지컬 한두 편이 소개되었으니 해마다 한두 편의 10주년 작품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10주년을 맞는 작품들, 특히 10주년을 맞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것은 왜일까.

1

10주년 라이선스 뮤지컬 시장 주도



2006~2019년 뮤지컬 장르 인터파크 티켓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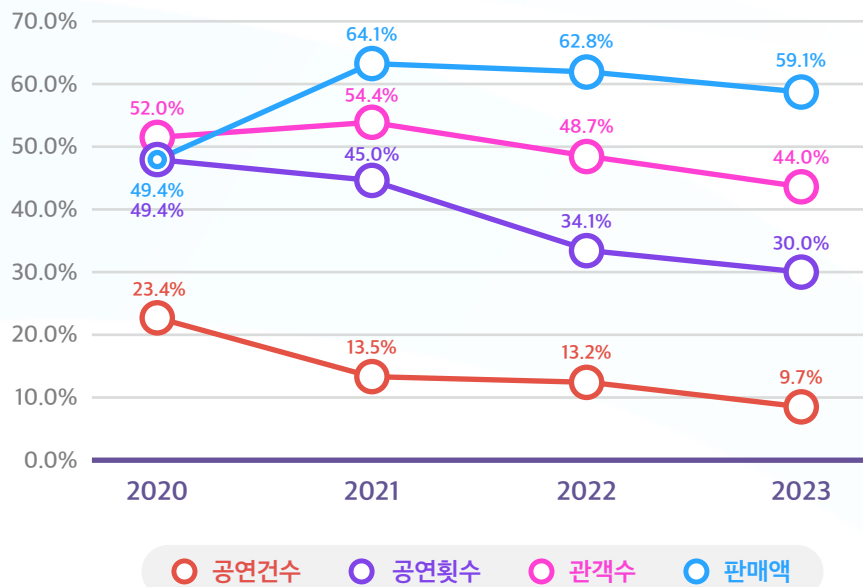


위 도표는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공연법이 개정된 이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후 KOPIS)에서 본격적으로 전산발권된 티켓데이터를 받아 의미 있는 통계를 제공한 것은 2019년 7월부터이다.

따라서 2006~2019년은 최대 티켓에매처인 인터파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 뮤지컬 시장은 2001년 <오페라의 유령> 초연 이후 해마다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2007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일어났다. 그 여파는 전 세계로 미쳤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 경제가 출렁이자 매해 놀랄 만한 발전을 지속했던 뮤지컬 시장 역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꺾일 수밖에 없었다. 2008년과 2009년은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새로운 신작을 도전하기보다는 기존의 히트작 위주의 작품들이 선보였다. 그리고 2010년 금융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자 움추렸던 뮤지컬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제작사마다 대형 신작을 선보이기 시작한다. 2010년에 <모차르트>, <몬테크리스토>, <서편제>가, 2011년에는 <조로>, <넥스트 투 노멀>, <광화문 연가>가, 2012년에는 <엘리자벳>, <황태자 루돌프>가 선보였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10주년을 맞는 시기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2022년이였다. 화려한 10주년 이벤트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

팬데믹 침체기를 벗어난, 2023년 <레베카>를 시작으로 <그날들>, <레미제라블> 등이 10주년 기념 공연을 올렸고 올해 <드라큘라>, <프랑켄슈타인> 10주년 기념 공연이 성대하게 준비되었다. <위키드> 역시 올해가 라이선스 공연 10주년인데 아마도 뮤지컬 영화가 곧 개봉되니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최근 대형 라이선스 10주년 공연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보이는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공격적으로 우수한 초연을 선보였던 라이선스 작품들이 줄줄이 10주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대극장 라이선스 뮤지컬 비중

* 2020~2023년 KOPIS 결산데이터 기준 뮤지컬 대극장 라이선스 티켓판매데이터 활용

한국 뮤지컬 시장은 2001년 <오페라의 유령>이 크게 성공하면서 라이선스 뮤지컬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인터파크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에 라이선스 공연건수는 전체 시장 중 약 25%였으나, 관객수는 약 57%, 티켓판매액은 약 67%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7년 이후 점차 창작 뮤지컬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라이선스 뮤지컬 비중은 약 44%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다시 라이선스 뮤지컬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위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대극장 라이선스 뮤지컬의 판매액 비중은 49.4% 까지 높아졌다. 대극장 뮤지컬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판매액이나 관객수는 대극장 작품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대극장 라이선스 뮤지컬의 관객수와 매출액이 2020년과 2021년 크게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극장 라이선스 뮤지컬이 대극장 뮤지컬 시장의 약 60%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 뮤지컬 시장은 10년 전, <지킬 앤 하이드>, <맘마미아>, <아이다>, <오페라의 유령>, <맨 오브 라만차>, <시카고>의 예처럼 2000년대부터 레퍼토리화되어 탄탄히 흥행몰이를 해온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이 이끌어가고 있다.

필자소개

박병성 (공연 칼럼니스트)

뮤지컬 전문지 '더뮤지컬'에서 오랜 기간 기자, 편집장, 국장으로 지냈으며, KOPIS의 데이터를 토대로 발행하는 '공연전산망'의 편집장을 지냈다. 공연 비평과 공연 시장, 공연 제작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로, 드라마터그로, 비평가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공연한오후'를 통해 공연계 소소한 담론을 생산하고 확장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